

주일 1-4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추수감사주일설교 - 요한복음 2:1-11

얼굴 붉힌 돌항아리 물

Give
Thank

1.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애 첫 표적(sign)입니다. 1절의 "사흘째 되던 날"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 3일이 지난 것을 말합니다 (참고: 요 1:35-50).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자여~" 호칭한 의미를 생각하며 답해 봅시다. (4절)
2. 공생애 첫 기적을 향한 예수님의 첫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6-7절)
3. 연회장에서 포도주를 맛 본 자들이 극찬을 합니다. 그 비밀을 누가 알았다고 성경은 적고 있나요?(9-10절)
4. 예수님의 첫 기적이 결혼식 잔치집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적의 결과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11절)입니다. 주님을 만난 첫 현장의 경험은 맹물이 포도주 되고, 무의미가 보람있는 가치가 되고, 무표정이 기쁨이 되는 경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난 '얼굴 붉힌'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

적용하기



Water in Stone Jar caused Blushing

John 2:1–11



- 1.** Miracle of the wedding at Cana was the first of Jesus' signs in his public life. "On the third day" in v.1 means that it has been 3 days since he first called on his disciples (Ref: Jo 1:35-50). What is the meaning of this sign at the wedding at Cana? As you answer, think about why Jesus called His mother "Woman~". (v.4)
- 2.** What was Jesus' first command for the first sign of his public life? What is the lesson we learn from this? (vv.6-7)
- 3.** Those who tasted the wine at the banquet hall gave high praises. Who does the Bible record knew the secret?(vv.9-10)
- 4.** There is meaning behind why Jesus's first sign was at a wedding celebration. The result of this sign was that "His disciples believed in him"(v.11) Their first experience of Jesus, at the place where they first met, was that water became wine, what was meaningless became worthwhile, and expressionless turned into joy. Share experiences of meeting Jesus that made you 'blush'.

Apply to Life

